

# 종축개량에 길이 있다



김진삼 차장  
농수축산신문

종축개량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숫자로 나열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종축개량사업을 축산업의 기간산업,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점에서는 축산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종축개량사업의 산물을 접하고 있다. 축산물 브랜드화가 그것이다. 이미 한우는 브랜드를 통해 수입 쇠고기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우 브랜드화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한우개량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그중 하나가 송아지의 혈통과 유전적 차이에 따라 송아지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한우등록사업이 활기를 띠고 등록우 경매시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낙농업 부산물 치부되던 육우도 최근 소비자 시민모임으로부터 '우리보리소와 '농부의 하루' 등 2개 브랜드가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증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육우의 혈통등록과 함께 이력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소 생산이력제는 개량, 질병관리 등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 관리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소 생산이력제가 개량등록사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생산했다는 정도의 생산이력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이 같이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기반에 맞춘 축산물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능케 한 종축개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낙농산업에서의 검정에 의한 개량의 효과를 두고 '영역원유의 주범'이라는 이야기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입담에 오르내릴 때면 이게 경우 우리 종축개량의 현실이라는 한계를 느끼게 한다.

다만 젓소개량은 산유량 위주의 종축개량 보다는 혈통등록에 따른 우수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개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개량 정보의 내실화 없이 마리당 유량만 늘어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개량에 지나지 않는 지적 때문이다.

수입개방이 아니더라도 국내 축산업의 생산비가 지금과 같이 높을 경우 우리 축산농가와 축산업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축개량을 통해 마리당 경제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축산업의 기간사업인 종축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량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래 축산농가, 학계, 관련단체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